

광산구, 외국인 코로나 검사율 높인다



광주 광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최근 광산구 월곡 2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검사를 꺼려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검사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27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대적인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해 외국인주민 17.5%에 해당하는 2289명의 검사를 마쳤으며, 전체 검사자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검사자 수는 광산구가 목표로 잡은 10%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검사자 수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이유로 광산구는 삼박자를 꼽았다. 신속한 외국인주민 지원 제도 마련, 외국인주민 거버넌스 참여, 공직사회 노력이 주요했다는 것.

광산구는 지난 18~22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월 들어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이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상 외국인주민 1만3079명 중 20일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368명으로 2.8% 수준이었다.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 20일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외국인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검사 참여와 외국인주민 공동

전체 17.5% 2289명 검사 마쳐 외국인주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큰 효과

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주민 대표들은 경제적·신분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검사 참여를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4일까지 6곳으로 검사 기간과 임시선별진료소를 늘리고, 검사자 신분보장, 자가격리자·확진자 생활비·숙박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신분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광산구는 또 22~24일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남산단 축구장과 지하철 평동역, 고려인마을 내 다모이공원, 하나은행 광산지점 등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렸다.

광산구 기업 전담 부서인 기업경제과는 2000여 기업에 선별진료소 운영과 이주노동자 참여 협조 등을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하남·소촌·평동 산단협의회 SNS에도 홍보를 병행했다.

광산구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인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다모이공원과 하나은행 광산지점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외국인주민 거버넌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신조야 고려인종합지원센터장은 러시아어 차량 가두방송으로 고려인마을 안팎을 돌며 검사를 독려했고, 외국인자율방범대는 자체적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주변의 질서유지 활동을 벌였다. 한 고려인은 다모이공원 선별진료소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전담하는 등 방역 활동을 돕기도 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광주의 국민복지센터 등 12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도 회원들에게 검사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의 조치로 화답했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외국인주민 명예통장과 다국어통역단과 함께 5개 언어로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선별진료소에는 7개 언어의 안내문을 비치했다.

한편 광산구는 이번 집중 검사 이후에도 광산구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최소 3000명까지 외국인주민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검사 안내 문자 발송을 건의하고, 기업별로 이주노동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시설·운영 자금 등 총 300억원

다음달 16일부터 접수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체, 지식산업센터 건립업체 등이다. 지원 선정 대상이 되면 창업 지원 또는 경쟁력 강화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업체당 10억원 한도다. 운영자금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업체의 경우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광주시가 선정한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에도 인증기간 내 용자액의 10%의 이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작성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9개 사업 9500여 명

광주시는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모집분야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중장년미래비전아카데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빙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 19개 사업이며, 모집인원은 9500여 명이다.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160% 이하 가구로 사업별·연령별·가구특성 등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은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서비스 유형별로 모집기간을 구분·진행하며, 기간은 가족·신체건강·중장년 사업의 경우 28~29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월1일, 노인장애인 사업 2월2~3일, 아동청소년 사업 2월4~5일이다. 미달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일은 2월8일이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사업별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에 선정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광주시 사회복지과,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립도서관, 올해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모집

취미 등 30개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립도서관은 “올해 독서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립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영어그림책학교, 만만한 독서놀이, 인플러그드코딩교실, 캘리그래피교실, 오카리나 등 30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 분야는 ▲독서 9개 ▲어학 6개 ▲교육 7개 ▲취미 8개이며,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강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강사 지원자는 홈페이지에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서와 강의계획서, 관련 자격증, 간단한 강

의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1일까지며,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5일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강사는 3월부터 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우수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매광주 소셜기자단’ 도전하세요

광주시, 31일까지 10여 명 모집...소규모 여행 콘텐츠 등 발굴

광주시는 “광주의 다채로운 다섯가지 매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열정적으로 체험하고 알릴 ‘제7기 오매광주 소셜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매광주 소셜기자단’은 ‘오매광주’(오매낭만예(藝), 오매불망 의(義), 오매맛나 미(味), 오매신나 흥(興), 오매가득 정(情))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 소식을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2021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인 ‘B.E.T. W.E.E.N’(Break, Encourage, Tie, Where, Enhance, Expect, Note)을 바탕으로 일상 속 힐링 여행, 가까운 사람들과 소규모 여행 콘텐츠를 적극 발굴한다.

또 소셜미디어 교육, 팸투어, 현장 취재 기회 등

을 통해 광주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온라인 콘텐츠로 생산하는 활동을 하며,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된다.

기자단 지원은 광주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셜미디어 우수 활용자나 사진, 동영상 촬영이 능숙한 전문직기는 우대한다.

지원서는 오매광주 공식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31일까지 메일(gwangju_city@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2월 5일 개별 통보되며, 총 1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매광주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